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보안 하이텔 PSPD, 나우누리 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 김민영 : 723-5052)
제 목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논평
날 짜 1998. 2. 24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논평 새정부에 거는 기대

희망의 세기를 열어갈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정부는 특권과 부패, 소외와 차별이 횡행했던 구시대와 단절하고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이 꽃피우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역사적 과업을 안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 출범하는 새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질서를 걷어내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거대한 개혁의 물꼬를 트고 흔들림없이 밀고나가는 확고한 개혁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실로 새정부의 개혁성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새정부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재벌체제의 개혁, 정의와 인권의 구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민족통일의 새로운 전기마련 등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더 이상 정경유착과 특혜의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약속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자못 크다.

김대중대통령과 새정부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과정을 일관되게 국민적 지지와 힘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울 이래 우리는 혼돈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아직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모두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몰고온 재앙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다. 국민의 고통에 함께 하며 국민의 희망에 귀기울이는 진정한 개혁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

● 새정부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

- 다음은 참여연대에 보내오신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원미선(36, 주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켰으면 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몰고온 지금의 재벌구조를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장혜자(28, 직장인)

7천만겨레가 염원하는 통일을 위해 그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대통령, 농촌이나 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5년 후에 퇴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상철(63, 사업가)

최근에 비자금의 적당한 처리, 금융실명제의 유보 등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일어났다. 새대통령은 대통령의 뜻대로 정치를 하는 인치가 아닌 법치를 철칙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